



LG, 에티오피아 직업훈련학교 제3회 졸업식
LG전자는 1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에서 '제3회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는 올해 72명을 포함해 개교 이래 18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생 대부분은 LG전자를 비롯한 회사에 취업했고 일부는 습득한 기술을 활용해 창업했다. /LG전자



BNK경남은행, 바다의날 기념 해수욕장 환경정화 봉사
BNK경남은행이 바다의날을 맞아 경남과 울산지역에서 '해수욕장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임직원과 가족 60여명은 2팀으로 나뉘어 창원 광암해수욕장과 울산 일산해수욕장을 찾아 곳곳에 버려진 각종 생활 쓰레기와 썩지 않고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했다. /BNK경남은행



AIA생명, 창립 100주년 기념 '런더풀 페스티벌' 성료
AIA생명이 지난 1일 뚝섬한강공원에서 개최한 그룹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런더풀 페스티벌(RUNderful Festival)'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A그룹이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 진행하는 국가별 릴레이 러닝 행사 중 하나다. 이날 에이블복지재단에는 절단 장애인 의족 지원을 위한 기금 총 6000만원이 전 달됐다. /AIA생명

현대홈쇼핑 중소협력사에 110억 '무이자 대출'

대출 기간 '6개월→1년'
R&D펀드도 함께 운영

현대홈쇼핑이 지난 2013년 업계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인 무이자 대출 사업이 중소협력사들의 R&D(연구개발)을 돕는 '성장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무이자 대출 사업은 지난 6년간 총 183개 중소협력사에 약 812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는 홈쇼핑 업계 최대 규모다. 현대홈쇼핑은 올해도 110억원 규모의 자금을 무이자로 중소협력사 28곳에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업체별 자금 지원 규모는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이다. 회사 측은 "중소협력사 자금 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출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며 "중소협력사의 성장성을 중심으로 보고 업체를 선정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대홈쇼핑은 중소협력사의 유동성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 초부터 중소협력사의 판매대금 지급주기를 기존 10일에서 5일로 줄였다. TV홈쇼핑과 현대홈쇼핑플러스샵, 현대H몰과 거래하고 있는 4250개 모든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대홈쇼핑은 홈쇼핑 업계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금 지원 제도도 마련해 상생 경영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관공동R&D펀드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홈쇼핑, 감정노동자 배려문화 정착 캠페인
롯데홈쇼핑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선플레단 선플운동본부와 공동 주관으로 감정노동자 배려문화 정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진행함과 동시에 UCC(User Created Contents/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공모전 시상식을 전개했다고 2일 밝혔다. 감정노동자 배려문화 정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기대감 커진 '목판화비엔날레'



홍경안 역
시시일각

한국 현대판화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은 1950년대 이후 국내 일부 작가들과 해외파들이 속속 신기술을 접하고 소개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창작판화 110주년을 넘어선 일본이나 17세기부터 판화 황금시대를 구축해온 중국에 비해 출발이 훨씬 더뎠던 초창기 한국의 판화는 단순한 기법의 판화가 주류를 이루었고 사회적, 예술적 인식 역시 낙후되어 있었다.

그러나 내외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판화의 선각자들은 선진 기술과 기법을 신속히 받아들여면서 발전시켜 나갔다. 이러한 움직임은 판화부흥의 새로운 발판을 제공했으며, 1958년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화협회』를 비롯해 1968년 『한국현대판화가협회』가 창설되면서 판화의 현대화는 가속 페달을 밟게 되었다.

70년대와 80년대에 접어들면서 판화는 명실상부한 독자성을 획득한다. 제작 환경은 열악성을 면치 못했어도 70년대부터 생겨난 그룹들은 판화가 개성 있는 미술 분야로 자리 잡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80년대에는 『서울프린트』, 『프린트 미디어』, 『나무』, 『창작판화가회』, 『현대목판화회』 등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판화 보급 운동에도 앞장섰다.

괄목할만한 현상은, 인식의 변화로

인한 전문적인 전시의 유치와 판화인구의 확산이었다. 1986년 처음으로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판화부문이 새롭게 신설되었고 서울국제판화비엔날레나 공간국제판화전, 한국현대판화가협회 공모전, 판화미술제 등을 통해 신진작가들이 배출됐다. 여기에 1993년 열린 '한국현대판화 40년' 전을 비롯해 1998년 개최된 '한국현대판화 30년' 전 등 굵직한 전시회가 연이어 추진되면서 국제화로의 교두보까지 마련했다.

이와 같은 80~90년대 판화부흥은 학계의 움직임과 맞물려 돌아갔다. 1988년 추계예술대학교와 홍익대학교에 국내 최초로 판화과가 신설되어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했다. 성신여대, 서울대, 이화여자대학원에도 관련 학과가 만들어져 체계적인 배움의 터전을 굳건히 함과 동시에 판화가 하나의 특정, 고유 예술로 편입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판화의 전성기는 짧았다. 1990년대 후반에 도래한 세계 경제 불황의 여파에 직격탄을 맞은 데다, 무차별적으로 상업판화를 양산한 소수의 화랑들과 공방들, 일부 의식 없는 작가들로 인해 판화의 이미지는 실추되었다. 그러나 판화계의 대응은 미약했다.

다행이랄까, 그럼에도 판화는 독자성과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전문성과 대중성 면에서 절정에 달했던 90년대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일부 작가들과 지자체 및 단체의 노력과 관심 아래 조형영역과 표현영역에서의 고유한 색깔은 유지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몇몇 지자체와 미술단체들은 동시대미술의 흐름 속에서 판화의 새로운 위상정립을 위한 고민을 현재도 멈추지 않고 있다. 시각적 향유를 넘어선 지적 깊이와 대중적 환기차원에서 판화의 또 다른 '진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는 '울산국제목판화비엔날레'도 있다.

울산국제목판화비엔날레는 오는 7월 17일부터 울산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목판화 전문 격년제 국제행사이다. 지난 2012년 첫발을 댄 이후 지난해까지 총 7회에 걸쳐 펼쳐진 '울산국제목판화페스티벌'을 보다 진취적인 국제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비엔날레로 형식을 변경했다.

비엔날레는 이전과 다른 역동적 파괴를 본질로 하며, 그만큼 해당 비엔날레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개념미술과 미디어아트의 범람 아래 예술의 외연 확장이 외면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판화의 의미를 되묻고 목판화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물론 가장 투박하면서도 예민한 표현형식을 지닌 목판화로 어떻게 동시대 인류가 처한 다양한 문제를 번역하고 공론화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지는 두고 봐야 할 과제이다. 또 하나, 적어도 비엔날레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이상 이전과 다른 그 무엇이 흥미로운 기대일 수밖에 없다. 다만 약 일주일에 불과한 전시기간은 못내 아쉽다.

/미술평론가·전시기획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IATA 집행위원 선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제75회 국제항공운송협회 연차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6월 2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항공운송협회(이하 IATA) 연차총회에서 집행위원회(BOG) 위원으로 선임됐다.

IATA 집행위원회는 전세계 항공사 최고 경영자 중 전문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선출된 31명의 위원과 사무총장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제항공운송협회의 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산하 기관의 활동을 감독하며 사무총장 선임, 연간 예산, 회원사 자격 등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IATA 최고의 정책 심의 및 의결 기구다.

그 동안 고(故) 조양호 회장이 지난 1996년 이후 IATA 집행위원회 위원을 여덟 번 연임을 해 온 바 있다.

조원태 회장이 뒤를 이어 세계 항공업계를 이끌어가는 IATA의 핵심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앞으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토대로 전 세계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롯데글로벌로지스 샐러드봉사단 청각장애아동 치료 후원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샐러드봉사단이 청각장애아동에게 수술비와 언어재활 치료비를 후원했다고 2일 밝혔다.

롯데글로벌로지스 샐러드봉사단은 지난 2017년부터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 2명의 청각장애아동에게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와 재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임직원은 수술을 성공리에 마친 아동과 가족을 찾아가 후원금을 전달하고 건강하게 쾌유할 수 있도록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 ◆특허청 ◇ 부이사관 전보 △ 산업재산정책과장 정연우 △ 상표심사정책과장 정인식 △ 특허심판원 심판관 이인수 △ 특허심판원 심판관 박재훈 ◇ 과장급 전보 △ 산업재산창출 전략팀장 한덕원 △ 특허심사제도과장 관준영 △ 특허심판원 심판관 김갑병 △ 서울사무소장 강구환
- ◆호서대 △ 사무처장 이문범 △ 경영대학원장 김홍근 △ 교육대학원장 박진규 △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이종원

부음

- ▲ 김복용씨 별세, 조인석씨 남편상, 김덕홍·김낙중·김영중(한겨레신문 의료 전문기자)·김보근씨 부친상, 박미리·임민경·김혜자씨 시부상 = 1일 오전 5시계, 광주 금호장례식장 402호실, 발인 4일 오전 9시, 062-227-4314
- ▲ 송기원씨 별세, 송준석·재석·효석(심택 대표이사)·현석(대한항공 부장)·재숙·영숙씨 부

- 친상 = 2일 오전 2시, 평택중앙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4일 오전 10시, 장지 화성시 양감면 천주교 공동묘지, 031-666-3400
- ▲ 공군자씨 별세, 김중식(전 계성농협장)·성우(매일신문 달성 담당 부장)·정애·영애씨 모친상, 이경수·김석현씨 장모상, 서순남·고순화씨 시모상, 성민(창녕산림조합 상무)씨 조모상, 김경현(창녕중학교)씨 시조모상 = 2일, 창녕군 한성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 발인 4일 오전 7시 30분, 010-3811-1350.
- ▲ 최정자씨 별세, 김중국·김춘희·김춘숙·김상국(중도일보 대흥지국장)씨 모친상, 김한호씨 장모상, 이정숙씨 시모상 = 2일 오전 9시계, 대전성모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4일 오전 9시, 042-220-9972.
- ▲ 박영도(영창건설 고문)씨 별세, 박우석(올인닷컴 이사)씨 부친상 = 2일 오전 1시30분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4일 오전 8시, 02-2227-7556.
- ▲ 장소선씨 별세, 윤희권(세종시의회의원)씨 모친상 = 2일, 충남 논산백제병원 장례식장 2층 VIP실, 발인 4일 오전 9시, 041-736-7244.